

지역기업제품 태국·베트남 수출길 열다

전북대,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 통해 27만 달러 수출 계약 성과 올려... 해외 바이어 섭외해 지역 매칭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창업지원단은 최근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시장개척단 바이어 상담활동을 통해 전북지역 기업 제품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북대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개척단' 일환으로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대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이노폴리스 사업단, 호원대 B, 우석대 B,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여했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최근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전북지역 기업 제품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글로벌 시장개척단 활동에는 전북지역 26개 기업을 파견해 275,000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과 23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성과를 올렸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5년 동안 글로벌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어려운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 수출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다양한 나라의 바이어들과 매칭

할 수 있도록 태국과 베트남에서 바이어들을 섭외해 참여기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고, 다수의 바이어들과 매칭 할 수 있게 현지 시장조사사를 통한 아이템 검증도 진행하며 기업 특성에 맞도록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특히 전북지역의 창업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개척단에 참여

했고, 총 3건의 현장 계약을 통한 고 무적인 성과를 올렸다. 이를 비롯한 다른 참여기업들도 MOU 체결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과 현지 바이어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금년 시장개척단을 통해 전라북도의 좋은 업체를 발굴하고 태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국가에 진출 할 수

있게 좋은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우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내 창업기관들과 협의하여 앞으로도 좋은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우리 도내 기업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예향의 도시, 전북을 다시 읽다

국립전주박물관, 이정직 특별전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에서는 '선비, 전북 서화계를 이끌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19세기말~20세기초 전북의 선비 석정石亭 이정직李定履(1841~1910) 선생의 학문과 예술세계를 살펴보는 전시와 연계해 오는 10월 11일과 12일 2시부터 5시 반까지 양일간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정직 선생은 "모르는 것이 없고,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는 희귀한 인재"라는 찬사를 오랜 친구였던 매천 황현으로부터 들은, 조선말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정한 선비다.

전통과 근대의 변화 사이에서 전북 예술문화를 이끌었고, 특히 호남 서단畫壇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인사들은 전국적으로 성장하며 전북에서 근대를 열었다. 그 시기 전국 어디에서도, 이정직 같은 선비는 찾아볼 수 없다.

/장은성 기자

2019년 전주에서 그를 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정직 선생이 소명으로 생각했던, 전통을 지키는 방법은 전시실에 선보인 유물들과 이번 10월 학술강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1일에는 구사회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유순영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강의가 이뤄진다. 10월 12일에는 진주현 전 서울대학교 박물관 연구관 및 박철상 한국문화유산연구소 소장의 강의가 마련돼 있다.

한편, 시서화로 둘러싸인 전시실에서 직접 작품을 통해 느껴보는 시간과 더불어, 학술강연회를 통해 100여 년 전 전북의 대표 선비 화가 이정직과 21세기 전북 지역민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특별전과 연계해 보다 심도 있는 학술 성과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호원대, 군산시민의 날 기념 건강체험 박람회 '큰 호응'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군산시민의 날을 맞아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군산시보건의료(소장 전형태)와 함께 '2019 건강체험 박람회 및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25개 체험부스와 다양한 무대공연으로 진행됐으며, 군산시민 5,000여명에게 다양한 건강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호원대학교에서는 ▶간호학과(혈압, 혈당 측정) ▶물리치료학과(전기치료, 테이핑) ▶응급구조학과(심폐소생술) ▶치위생학과(올바른 칫솔질, 입체조) ▶호텔외식조리학과(무알콜 칵테일)의 체험부스와 행사 전체 지원봉사자 및 300인분의 식사지원(주)삼김과나눔)을 전담 운영하는 등 다양한 건강 실천 행사를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왕중산 전북보건복지증진센터 센터장(호원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과 노인의 치매예방 건강관리를 위한 재능기부봉사를 중점적으로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호원대학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 중기제품 공공구매 전시 상담회 열어

전북도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제품(중소기업 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촉진 지원을 위해 전북도청 및 전북경제진흥진흥원과 공동으로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50여개

가 참가해 우수제품 전시, 1:1 구매 상담, 기업 홍보 등을 진행한다.

특히 청사 복도에 제품을 전시해 제품의 종류와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촉진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도교육청은 물론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서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사회적기업 제품 3% 이상 구매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212억원, 구매비율 6.59%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2.25%의 구매실적을 보이면서 권장 목표인 3%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교육청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마련, 각급 기관 및 학교에 안내하고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배움과 성장의 '수업한마당'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2일을 시작으로 제6회 배움과 성장의 수업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업한마당은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약 2개월 동안 다양한 수업 나눔이 이뤄지고, 도약마당에서 2개월 동안의 수업 나눔 등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교사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업한마당은 학습공동체를 주제로 삼아 학교별, 교과별 학습공동체 단위로 참여해 학습공동체 운영사례, 공동연구·공동실행의 과정,

학습공동체 기반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사례 등을 나누고 연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는 마당은 12일 9시 30분 전주교대 광학당에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교육세미나와 ▲시와 노래가 있는 콘서트(정호승/안치환) ▲아이의 학습공동체 한마당부스와 도서전 등으로 이루어지며, 학습공동체 뿐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나눔마당은 14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역별 수업나눔이 이뤄지며, 도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교과별 수업나

눔, 주제별 한마당 및 토론회(학부모, 시민, 학생, 대학), 국의 연수나눔 등이 2개월에 걸쳐 펼쳐진다.

도약마당은 여는 마당, 나눔마당에 참여한 학습공동체 주체들, 발표자, 참가자 등이 모여 각 행사별로 나눠진 사례들을 종합하고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와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한마당을 통해 "교사의 자발성과 동료성, 관계성에 기반한 학교 혁신을 이끌어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전북교육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대기오염 해결

전주대 김동현 교수, 대만국제발명대회 기술상 수상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가 최근 열린 대만국제발명대회에서 '차량부착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및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생활건강 부문 대만발명협회 특별상과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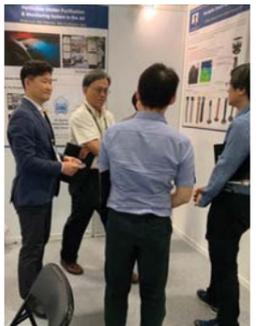
이번 수상은 2017년 6월 미국 피츠버그 국제발명대회 2관왕, 2019년 4월 제47회 스위스 제네바국제발명대회 2개 부문 금상과 폴란드 발명진흥협회장 특별상 수상에 이은 쾌거다.

대만국제발명대회에는 50개국 약 500여 개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20개 분야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특히 김동현 교수가 출품한 차량부착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및 모니터링 플랫폼은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만 현지와 유럽, 동남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중국 기업과 기술이전 논의까지 가졌다.

김동현 교수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될 만큼 국민건강과 산업 분야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도 이러한 시스템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지난 스위스발명대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트 분야에서 금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드론을 이용한 드론축구 스포츠'가 중국 소재 드론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요청을 받았다.

세계 드론분야에서 가장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은 전주대학교의 특허 기술을 도입하여 드론 축구 기술을 각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며, 이는 약 1404천 억원 규모다.

이후 드론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되면 중계, 지역팀 구성, 기업광고, 온라인 게임 등 기존 스포츠 경기 이외의 다른 분야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육성축제선정

2019 진안홍삼축제

10.9(수)~13(일)

마이산북부 일원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160)

10.9(수) 진안홍삼 한류콘서트 18:30

아스트로 모모랜드 이로한 이영지 왈라리 진해성

10.10(목) 마이산 락 페스티벌 19:00

크라이벳

10.11(금) 진안홍삼 노래자랑 18:30

노라조

10.12(토) 트로트 페스티벌 17:00

송대관 설은도 장윤정 김연자 신유 현숙 진성

10.13(일) 전국 랍10 가요쇼 15:00

정미애(미스트롯) 홍지(미스트롯) 정다경(미스트롯)
전국 진안향우회 만남의날 : 13:00 주안 : 재민재민향우회

주관 /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 문의 063)430-2391~3 / <http://jinanfestival.com> 잊지 못할 축제를 경험하고 싶다면? **진안홍삼축제** 를 검색하세요!